

DAY
01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1장 □ 2장 □ 3장 □ 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Date / /

말씀 창세기 3:14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는 오늘도 입을 벌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는 간교한 뱀도 있었습니다. 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아주 교활해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가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담과 떨어져 혼자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뱀은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준비해 두었던 질문으로 여자를 교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6-17)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뱀은 그 명령을 교묘하게 꺾어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뱀의 작전에 말려든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뱀과 여자와 아담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저주 중에서도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뱀을 향하여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은 지금도 배로 기어 다닙니다.

그런데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뱀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절대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뱀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가 뱀,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 5:8-9)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신하라”는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수작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창세기 3장 4절을 읽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나눔 2 창세기 3장 5절을 읽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2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Date / /

말씀 창세기 6:1-3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한 죄를 보시고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가 없고 긍휼하심이 없는 분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시는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그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창 6:3)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바사르라는 단어는 고깃덩이, 살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들이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생명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명을 잃어

버린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 6:1-2)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은 고깃덩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데 스스로없는 모습, 서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고깃덩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온전히 자기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고깃덩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나눔 2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나의 만족을 위해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3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10장 □ 11장 □ 12장 □ 13장 □ 1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Date / /

말씀 창세기 12: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솝우화의 하나인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읽어보면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동네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들고 뛰어오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거짓말을 몇 번 반복한 후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을 믿을 때는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그의 말에 반응하여 무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어 그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믿는 대상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믿음

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살던 시기는 친족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친족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그 동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사는 것에서 오는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받게 될 유산도 상속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타지에 가서 이미 서로 한편이 된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창 12:4).

아브람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나눔 2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4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15장 □ 16장 □ 17장 □ 1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Date / /

말씀 창세기 16:13-14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헤트 사이에 있더라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갈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한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펴보지도 못한 꼳 같은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을 당시 그녀의 나이는 10살에서 20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의 주인인 사래가 하갈에게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아브람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이었던 하갈에게 사래의 그 말이 좋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하갈은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주인과 동침하여 그의 상속자를 낳아 팔자를 고쳐보자는 생각은 하지도 못할 만큼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21장에서 쫓겨나기까지 자식이 이스마엘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싫었음에도 종이라는 신분과 주인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85세 된 할아버지와 동침하였고 덜컥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종으로 팔려 다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85세의 할아버지와 동침하고, 게다가 그 노인의 자식까지 잉태한 그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아마 하갈은 자식을 임신했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

다. 사래는 그녀를 곱게 보았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시켜서 자기 남편과 동침하고 임신한 하갈을 사래는 엄청나게 질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갈을 힘들게 했던지 하갈이 그의 주인을 흘겨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멸시하였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흘겨보다, 눈을 흘기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흘겨보았다고 사래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던지 임신부인 하갈이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냥 있다가 맞아 죽으나 광야에 나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갈이 처한 상황과 같이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하갈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주시고 그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더욱 간구하고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찾아 나가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